

함흥차사 박순과 황룡산

글 최재호(고양시 덕양구)

조선조 개국공신으로 함흥차사(咸興差使)를 자원하였던 박순(朴淳, ?~1402년)은 태조 이성계의 막료 출신으로 본관은 음성이고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은 첫째 부인 한씨(韓氏)의 소생 방원(芳遠)이다. 그러나 태조가 계비 강(康)씨의 소생 방석(芳碩)을 세자로 책봉하자, 방원을 지지하는 세력과 세자 방석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골육상쟁이 일어났다. 이에 분개한 태조는 차남인 방과(芳果,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함흥으로 가서 머물게 되었다. 이후 태종(太宗)은 태조의 노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문안사를 보냈지만, 매번 문안사(問安使)가 돌아오지 않았다. 바로 이때 판중추부사 박순이 문안사로 갈 것을 자청하고 나섰다.

박순은 그간의 다른 사자(使者)들과는 달리 새끼 딸린 어미 말을 타고, 태조가 머무는 함흥 분궁 근처에 이르러 길옆 나뭇가지에 망아지를 매어놓고, 어미 말만 타고 궁으로 향하였다. 이때 어미 말이 머뭇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태조가 그 이유를 묻자, 박순이 아뢰기를 “망아지가 행로(行路)에 방해가 될 것 같아 나뭇가지에 묶어 놓았더니, 어미 말이 망아지와 지친(至親)의 정으로 떨어지기가 싫은가 보옵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난 다음, 박순과 태조가 장기를 두고 있는데, 마침 지붕 처마 끝에서 새끼 쥐가 바닥으로 떨어져 거의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어미 쥐가 달려와 새끼 쥐를 끌어안고는 달아나려 하지 않았다. 이때 박순이 태조 앞에 엎드려, “전하! 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새끼를 두고 도망가지 못하는 저 어미 쥐와 새끼 쥐의 모습이 몹시 가깝게 보입니다”라고 아뢰자, 태조도 이에 감동한 듯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에 박순은 엎드려 환궁할 것을 눈물로 아뢰자, 마침

내 태조가 돌아갈 것을 허락하였다.

태조의 허락을 받은 박순이 하직 인사를 올리고 자리를 뜨자, 태조를 신하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훗날 태종이 자신들을 가만 두지 않을 것으로 판단, 박순을 죽여야 한다고 태조에게 아뢰었다. 태조는 박순이 이미 용흥강(龍興江)을 건너 한양으로 향하고 있을 줄로 믿고, 부하들에게 어검(御劍)을 내어주며 그가 강을 건넌다면 쫓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하지만 박순이 강나루에 닿아 막 배에 오르려는 순간 이성계의 부하들이 달려와 그의 허리를 베었다. 박순의 몸은 순식간에 반은 강물에 떨어지고 반은 배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半在江中, 半在船). 박순의 부음을 들은 태조는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내 그에게 한 말을 저버리지 않으리라”라고 다짐함과 동시에 용흥강변에 서원을 세워 그의 혼을 위로하도록 하였다. 한편 남편이 무사 귀환만을 밤낮으로 빌고 빌던 박순의 부인 임씨는 남편의 흉보를 접하고, 자신의 정성이 부족했음을 한탄하며 스스로 목을 매고 죽었다.

박순과 그의 부인의 죽음을 접한 태종은 살신성인으로 임무를 수행한 박순의 공적을 공신록에 올리도록 하였다. 또 한 자결한 부인에게는 정경부인으로 추증과 동시에 생전에 박순 부부가 살았던 파주와 고양지역 일대의 산야를 하사하여 묘와 함께 열녀문을 세우게 하였다. 이처럼 함흥차사 박순과 그의 부인 음택(陰宅)이 있는 곳이 현재의 일산동구 성석동 일대의 황룡산(黃龍山)이다. 따뜻한 봄 내음과 함께 역사의 체취를 느끼기에 적합한 곳이다.

